

SONG JAE HO

6 June - 11 July 2009

사소한 일상속 은밀한 경험과 기억들



Untitled, Acrylic on canvas, 162.2 x 130.3 cm, 2009

감각적인 색감과 독립적인 모티브 그리고 서정적인 시선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송재호 개인전이 신사동 아이엠아트에서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린다.

송재호의 작업 주제들은 그를 둘러싼 주변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과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사적이고 은밀한 기억과 경험에서 만들어진 감정들을 혼자만의 상상 속에 저장하지 않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캔버스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노출시킨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품위 있는 놀이'라고 이야기 하는 작가는 꾸준히 회화작업을 해오면서 음악적인 소리가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느껴지도록 표현해왔다. 작가의 섬세한 감정은 화면 안에서 각기 적절한 시각적 언어로 변화해 작가만의 절제된 붓터치와 감각적인 색채로 그만의 고유하고 독립된 리듬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선이나 도형들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 모티브들은 작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정형화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화면에 옮긴 것으로써 구체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에서 느껴지는 것이나 그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다.



Tonsorial, Acrylic on canvas, 80.3 x 100 cm, 2008

CIBNEWS 김대희기자